“생활폐기물업체 난립 이유 북구청, 한 곳만 선정 부당”

광주지법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생활폐기물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 난립 등의 이유로 한 업체만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1일 이모(40)씨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한 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선정했다”며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해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을 준 직영방식으로 하는 경우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대로 이어지며, 독점업체가 파업 또는 부도 등으로 업무를 수행치 못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업체가 없어 시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업체허가를 복수체제로 운영할지라도 실질적인 경쟁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데다 ▲행정관리부담만 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사업 및 용역의 경쟁입찰 추진시 제도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前 구례군수 습격 50대 구속영장

구례경찰은 11일 전경태(59) 전(前) 구례군수를 살해하려 한〈본보 9월6일자 7면〉 이모(57·무직)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5일 새벽 5시50분께 구례군 마산면 P호텔 사우나 앞 계단에서 전 전 군수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씨는 앞서 이날 오전 구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군수가 군수로 재직하는 8년 동안 개인적인 냉대와 소외감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을 뿐 정치적 의도나 배후는 없다”며 “개인적인 원한으로 군민 화합을 저해한 데 대해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교통사고가 나자 자해를 시도해 한 달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이씨에게 복부 등을 찔린 전 전 군수도 병원 치료 후 지난달 말 퇴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전남대 낮은 취업률 이유 있었다

전남대 인력개발센터 2,500명 분석

전남대 광주캠퍼스의 올 졸업자 3천686명 중 대학원 진학이나 군 입대자를 뺀 순수취업자는 1천556명. 47.7%의 순수취업률이다. 52.4%의 순수취업률을 기록한 조선대보다 낮다. 자타가 공인하는 호남 최고 대학인 전남대의 취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남대 취업지원센터인 종합인력개발센터가 재학생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준비 현황’자료는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표〉

◇취업 준비 미흡 = 취업 준비 시기를 묻는 질문에 ▲1학년 11.1% ▲2학년 31.7% ▲3학년 49.9% ▲4학년 7.3% 등으로 3학년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무려 57.2%에 달했다.

기업체 채용 기준 토익 점수인 70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도 26.8%로 응답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수 조사에서는 ‘없다’고 답한 학생이 55.5%로 반을 넘었다.

배낭여행이나 현장 실습 등 해외·현장 연수 경험이 없다는 학생도 79.3%에 달했다.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54.1%의 학생이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채용설명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69.5%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취업률 이유 5가지

① 토익 700점 이하 73%
② 자격증 미소지 55%
③ 3학년돼서야 공부 57%
④ 해외·현장연수 무경험 79%
⑤ 채용설명회 외면 69%

◇눈높이는 지나치게 높아 = 취업 희망 분야 조사에서 공무원을 선택한 학생이 33.6%에 달했고 공기업도 25.2%에 이르렀다. 대기업도 19.8%였다. 대기업 취업 희망자의 경우 삼성 51.2%, LG 15.2%, CJ 7.4%, 현대 5.1%, SK 3.2%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을 선호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10명 중 8명은 ‘남 보기에 그럴듯 하고 자신도 만족하는’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는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역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는 2%에 불과했다. 창업 희망자도 7.1%에 달했다.

직장 선택기준도 ▲안정성 38.4% ▲적성 24.8% ▲자기개발 가능성 18.5% ▲보수 17.8% 등으로 취업 희망 직종에 못지 않게 ‘직장을 최대한 골라서 가려는’ 학생들의 높은 눈높이를 반영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올 순수취업자 직종별 취업 현황

구분	취업자 수(명)	비율(%)
대기업	352	22.6
병원·약국	316	20.3
중소기업	292	18.8
공무원	214	13.8
학원강사	160	10.3
교사	135	8.7
자영업	63	4.0
공사	24	1.5

■ 재학생 취업희망 분야

구분	희망자 수(명)	비율(%)
공무원	821	33.6
공기업	616	25.2
대기업	485	19.8
창업	175	7.2
중소기업	49	2.0
기타	299	12.2

■ 재학생 직장 선택 기준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안정성	961	38.4
적성	620	24.8
자기개발 가능성	462	18.5
보수	445	17.8
부모의 기대	13	0.5

화사해진 지하철역

주시내 13개 지하철 역에서 열린다.

11일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 막을 올린 ‘제3회 메트로 예술제’에서 유치원생 등 시민들이 ‘꽃과 시민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꽃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예술제는 15일까지 광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술 더마시자” 거절에 대학교수가 여조교 폭행

광주의 한 대학교수가 술에 취해 여조교를 폭행,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11일 광주 S 정보대학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김모(44)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지구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조교인 이모(여·24)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네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조교 이씨와 용봉동 K 호프집에서 병맥주(7병)·생맥주(1,600cc)를 나눠 마신 뒤 “다른 데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폭행 직후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조교가 먼저 반말을 해 화가 나 교육 차원에서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지방선거위장전입 의혹 전남경찰청, 67명 수사

전남경찰청은 1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구 내 주소지로 ‘번개 전입’한 뒤 선거 후 퇴거하는 등 위장전입 의혹이 짙은 67명의 명단을 광주지검 공안부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주로 5·31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들의 친·인척들이다. 이들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2005년 1월13일~2006년 5월24일) 사이에 선거구 주민등록지로 전입한 다음, 선거 직후 퇴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장 전입 혐의로 수사의뢰된 200여 명을 상대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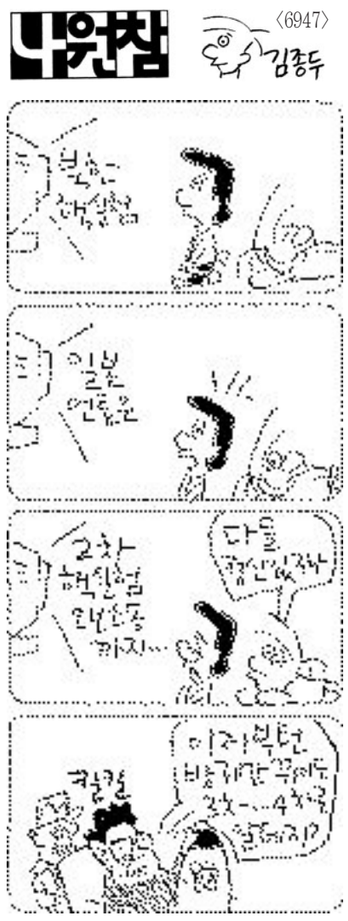
쌍나팔

○…알코올 중독 병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이삿짐센터 차량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7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은 11일 낮 12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J아파트 202동에서 이삿짐 나르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문모(여·73)씨의 어깨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이 아파트 주민 김모(50)씨를 입건.

○…김씨는 지난 5개월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문씨가) 이삿짐센터 종업원인 줄 알았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사 구경하던 70대 '흉기 날벼락'